

무기선진국 경쟁적으로 아시아 무기시장에 “군침”



◀ 암스콜社 관계자는 『남아공의 무기는 미국제보다 싸고 러시아제 보다 성능이 좋아 특히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에 인기가 높다』고 밝히고 「싸고 성능좋은」 남아공제 무기를 수입하려는 제3세계 바이어들의 남아공 방문이 러시아를 이르고 있다고 자랑한다 (사진은 남아공의 Rooivalk 공격 헬기)

아시아의 군비경쟁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에 밝혀진 사실만도 중국이 항공모함 개발을 위해 항모개발소조를 구성하여 항모에 탑재할 함재전투기와 급유기의 기종까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고,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첨단기술의 군사 전자 시스템을 도입하여 오는 9월경 프랑스로부터 인도받는 프리킥함 6대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보도됐다.

또한 태국은 미국으로부터 18대의 A-7 코르세어 공격기를 8억불에 구입, 4년에 걸쳐 해군에 배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냉전후 서방 각국의 국방예산이 감축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러시아 및 유럽 주요국들이 재래무기 판매경쟁에

▼ 중국이 구형인 명급 및 R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러시아로부터 3척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Kilo급 잠수함



열을 올리고 있어 더욱 우려된다.

이는 무기산업 선진국들이 경제난 타개 및 첨단무기 개발에 필요한 새로운 財源을 재래무기 판매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87년부터 91년 사이에 모두 590억불어치의 무기를 수출했으며 이 가운데 60%를 개발도상국에 판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북한이 세계 11번째 무기 수출국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유엔안보리가 지난 5월 25일 對남아공 무기금수를 해제함에 따라 남아공이 ‘합법적’으로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도 커다란 변수이다.

남아공은 제재기간 동안 국영회사 암스콜社를 설립하여 민간루트를 통해 무기를 밀수출하여 세계 10위권의 무기회사로 키운 바 있다.

아시아와 중동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및 域內 갈등관계에 있는 국가들과의 불화에 대비하여 재래무기를 대량 구입하고 있는데, 이를 노리는 무기 선진 각국들의 불꽃튀는 무기판매 경쟁으로 앞으로도 당분간 군비경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